

# 클린스만 “한국 스트라이커들 수준 높다”



클린스만 감독

오늘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데뷔, 울산서 콜롬비아와 평가전  
“이강인은 차세대 에이스 ... 선수들 장점 최대한 파악하겠다”

‘데뷔전’을 하루 앞둔 세계적 공격수 출신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 스트라이커들을 두고 ‘수준 높다’고 호평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2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표팀 공격진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선수들이 특집하고 싶구나, 아직 배가 고프구나 하고 느꼈다. 나도 선수 시절 9번, 스트라이커였다. 세부적인 부분을 내게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도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현역 시절 조국인 독일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공격수로 평가받았다. 이탈리아 월드컵과 유로 1996에서 독일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넣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특히 차세대 대표팀 에이스로 꼽히는 이강인(마요르카)을 호평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당히 수준 높은 축구를 선보

이는 선수”라며 “18, 19세부터 해외에서 뛰 이렇게 어린 선수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지도자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마요르카 경기를 다 지켜볼 것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장에서 펼쳐지는 콜롬비아와 친선경기는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전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겨받은 클린스만 감독의 공식 ‘데뷔전’이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FIFA 랭킹 17위로 25위인 한국보다 높다. 만만찮은 팀과 첫 경기를 앞둔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 합류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내 역할”이라며 “포메이션 등 전술적인 부분은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전의 목적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는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문화에도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손흥민 “주장으로 항상 솔선수범하겠다”

4년 7개월째 최장수 ‘캡틴’  
“월드컵 16강 이후 첫 경기  
선수들 즐거운 모습 보여줄 것”



기자회견 하는 손흥민.

벤투호에 이어 클린스만호에서도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을 맡은 손흥민(30·토트넘)이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손흥민은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항상 솔선수범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선수들이 그걸 보고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 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이곳에서 콜롬비아와 맞붙는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이후 대표팀이 치르는 첫 경기이자,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호흡을 점검하는 자리다. 손흥민을 비롯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끈 선수들 대부분이 다시 뭉쳐 팬들 앞에 선다.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16강 진출이었고, 성공적인 월드컵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겨울에 월드컵을 하다 보니 끝나고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기 바빴고, 팬들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경기장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 재미난 것을 보여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기 입장권이 매진됐다는 소식에 “그만큼 한국 축구와 대표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선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클린스만호가 첫선을 보이는 만큼, 새 사령탑은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 수도 있다. 손흥민은 “월드컵에 갔던 멤버들이 대부분 소집돼 훈련하는 거라서, 어떤 시스템이든 서로 좋아하는 플레이스타일을 알고 있다. 경기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에 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을 잘 펼쳐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

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을 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야 팬들도 즐겁다. 웃으면서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하고는 “그러다 보면 골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승리를 할 수 있다. 또 승리하면 좋은 분위기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투 감독이 부임한 2018년 9월부터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그 역할을 이어간다. 4년 7개월째 ‘캡틴’을 맡은 역대 최장수 주장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인 만큼, 손흥민이 계속 대표팀에서 활약한다면 8년 가까이 주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선수들을 이끌고 카타르 월드컵을 치른 손흥민은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선수들이 월드컵이 얼마나 어렵고 간절한 무대인지 느꼈을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주장으로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장으로서 팀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와서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도 맞이할 텐데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 임성재, 첫 경기에서 8홀 차 대승



임성재

WGC 벨 테크놀로지스

임성재(25)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벨 테크놀로지스 매치 플레이(총상금 2000만 달러) 16강 진출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임성재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매버릭 맥닐리(미국)에 8홀차 대승을 거뒀다. 이 대회 최다홀 차 승리 기록은 2006년 타이거 우즈(미국)가 남긴 9홀차다. 이번 대회는 4명의 선수가 서로 한 번씩 겨뤘기 때문 1점, 비기면 0.5점을 받는다. 승점 1위 선수가 16강에 진출하는 조별리그에서 임성재는 일단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16번 시드 임성재는 58번 시드 맥닐리의 초반 자멸에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따냈다. 임성재는 5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뽑아냈지만 이미 3홀차로 앞서 나갔다. 맥닐리가 2번(파4), 4번 홀(파3) 보기로 2홀을 먼저 내준 덕이었다. 6번 홀(파5) 버디로 4홀차로 앞선 임성재는 7번 홀(파3)에서 맥닐리가 보기를 적어내자 5홀차로

달아났다. 맥닐리는 8번 홀(파4)에서 임성재의 그린 옆 러프 실수를 틈타 1홀을 만회했지만 10번(파4), 11번 홀(파3) 연속 보기로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임성재는 12번 홀(파4) 버디로 6홀을 남기고 맥닐리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맥닐리는 버디를 하나도 뽑아내지 못하고 보기 5개를 쏟아냈다. 맥닐리는 지난해 이 대회 조별리그 첫전에서 호아킨 니만(칠레)을 8홀차로 이긴 적이 있다. 24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J.J. 포스틴(미국)을 맞아 2연승을 노리는 임성재는 첫판 대승으로 체력을 크게 아끼는 행운도 챙겼다. 임성재는 “맥닐리가 안 풀렸다. 그래서(쉽게) 이길 수 있었다. 오늘은 빨리 끝나서 체력을 많이 아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매치플레이 대회에서는) 첫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 2승을 해도(16강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주형(21)도 알렉스 노렌(스웨덴)에게 2홀차 낙승을 올렸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이 훈련 전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엄지성 1골 1도움... ‘황선홍호’ 오만에 3-0 승리

‘황선홍호’에 승선한 광주FC 엄지성이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오만전 승리의 주역이 됐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3일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도하컵 U-22 친선대회 1차전에서 오만에 상대로 3-0 승리를 거뒀다. 엄지성은 경기 시작 33분 만에 1골 1도움을 기록, 맹활약했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대표팀은 26일 오전 2시 30분 이라크와 2차전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0개국이 출전했으며, 대표팀은 3월 A매치 기간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엄지성이 골문을 열었다. 이태석(서울)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문전에 있던 엄지성이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했다. 골키퍼 옆에 떨어진 공은 그대로 바운스 돼 골망을 흔들

었다. 엄지성은 팀의 두 번째 골에도 관여했다. 왼쪽에서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으로 진입한 엄지성이 중앙으로 공을 보냈고, 김신진(서울)이 공을 잡아 터닝 슈팅을 날리면서 2-0을 만들었다. 초반 분위기를 가져온 한국은 후반 31분 나온 안재준(부천)의 골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중원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홍윤상(뉴네버크)이 페널티 박스로 침투해 잡았고, 침착하게 뒤로 패스했다. 이어 안재준이 오른쪽 노스톱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를 갈랐다. 한국은 실점 없이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면서 3-0 승리를 완성했다. 한편 엄지성과 함께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한 광주 ‘장신 공격수’ 허윤은 이날 후반 36분 안재준의 교체 선수로 투입돼 그라운드를 누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